베트남은 덥조.

[팀원]

신지윤(팀장, 문화콘텐츠11)
천영우(사회학 11)
김향기(정외 11)
김동이 (사회학12)
김가람(경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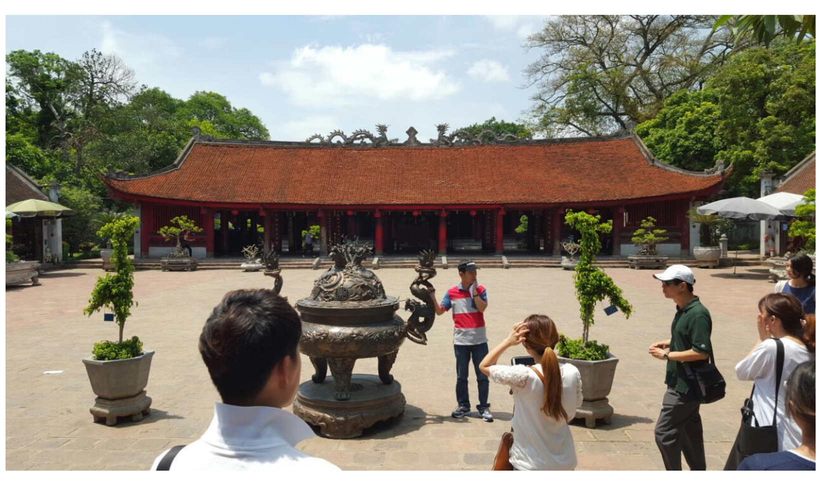
[목차]

1. 베트남 역사 유적지
2. 하롱베이
3. 여행자거리와 베트남 음식
4. 하노이문화대학교 강연과 GYBM

주제 :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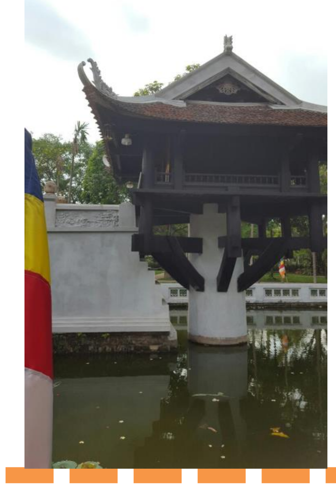
한국과 인종이 가장 비슷하지만 약간은 생소한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 4박 5일동안 직접 체험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패널을 작성한다.

베트남 역사 유적지



•하노이 문묘

공자의 묘라고도 불리는 하노이 문묘는 호안끼엠 호수에서 꽤나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다. 베트남 최초의 대학교이자 국립대학 역할을 했던 문묘는 1070년 리탄통 황제가 공자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원이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거북이 모양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과거시험 합격자들에게 세워준 것이다. 비석의 모양이 거북이인 이유는 베트남에서 거북이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특이하게 생각했던 점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줄 알았던 과거시험은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있었다는 점이었다.
문묘 안은 굉장히 넓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남았던 것은 봉황과 같은 신비한 동물들을 조각해 놓은 것이었다. 또한 공자와 함께 공자의 제자로 뽑히는 증자, 맹자, 안자. 자사를 봉안하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문묘 안은 생각보다 넓었는데, 돌아다니는 날이 너무 더워서 정신 없이 구경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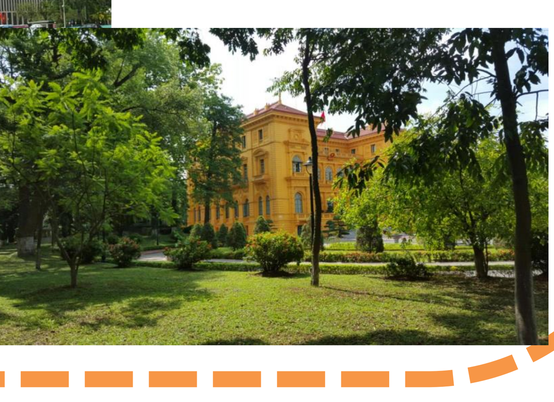


•한기둥 사원

베트남 국보 1호인 한기둥 사원은 하노이를 상징하는 고찰로 기둥 1개 위에 불당을 얹었다고 하여 '일주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호치민 묘지에서 가까운 한기둥 사원은 1049년 리타이 통 왕이 '꿈속에서 부처님이 왕자를 얻게 해주셨는데 눈을 떠보니 연못 한가운데 있었다.' 하여 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사원 안쪽으로 올라가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베트남은 세세한 역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치민 주석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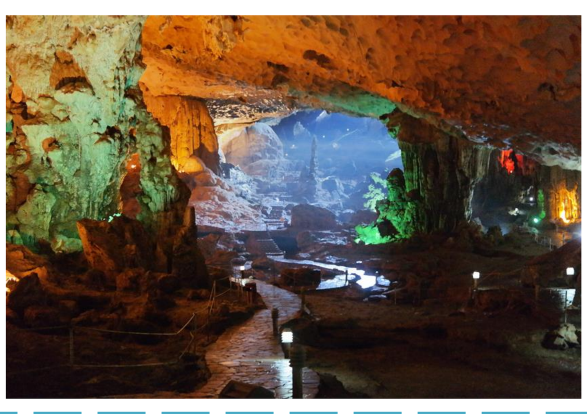
베트남 하면 쌀국수와 함께 떠오르는 것은 바로 '호치민 주석'이다. 베트남에 모든 화폐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호치민'이라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호치민 주석'의 의미가 매우 크다. 널따란 광장을 거닐다 보면 우뚝 서있는 신전같이 생긴 곳은 호치민 주석의 관을 모셔두는 곳이라고 한다. 그 길을 따라 조그만 더 걷다 보면, 호치민 주석과 관련한 사원을 구경할 수 있으며, 규모가 꽤나 큰 호치민 박물관을 볼 수가 있다. 박물관에는 호치민 주석이 베트남 독립을 위해 세계 각국에 보낸 편지들부터 해서 베트남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들,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책에서만 접했던 인물의 행적이 사실은 한 국가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박물관을 비롯한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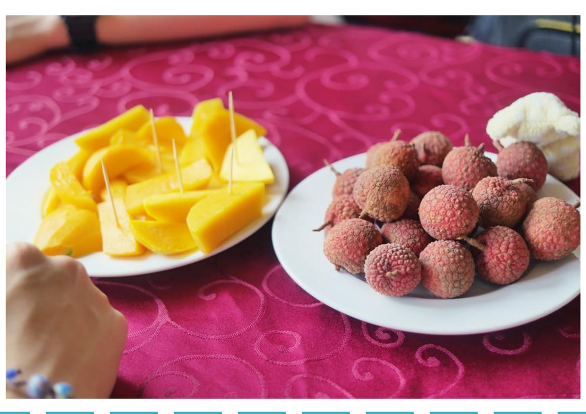


하롱베이

•하롱베이는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형성된 '만' 이다. '하롱(下龍, 하롱)' 은 용이 내려와 앉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고, '베이(Bay)' 는 말 그대로 '만' 을 뜻한다.
베트남 첫째날 하노이 공항에서 하롱베이로 4시간 가량 이동했다.중간에 길에서 파인애플을 먹었다.
하롱베이는 관광도시라서 그런지 상점에서 한국돈과 달러 모두 취급했다. 상점들은 대부분 소규모였고 상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다. 역시나 밤에도 오토바이가 많았고, 첫 날이라서 더욱 오토바이 때문에 길을 다니기 힘들었다. 길거리 음식은 사실 사먹기 힘들 정도로 비위생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롱베이 호텔 근처의 상점들은 대부분 정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 웬만하면 흥정을 하는 것이 좋다.

•배를 타고 띠엔꿍 동굴과 티톱섬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었다. 배 위에서는 식사도 할 수 있었다. 배에서 그림 같은 하롱베이의 경관을 관람할 수 있었다. 배에서 내려서 띠엔꿍동굴에 갔다. 석회암 지대에서는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도 용식 작용이 진행된다. 고생대에 해당하는 약 4억~5억 년 전부터 해저의 산호초 군락이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되어 석회암 지대가 형성되었다. 훗날 이 지반이 융기하면서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생대 제4기에 해당하는 200만 년 전부터는 바닷물에 잠기고 드러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석회암층의 절리 면을 따라 침식 작용이 일어나 탑 카르스트의 형태가 나타났다. 약 6,000년 전 다시 아랫부분이 바닷물에 잠겨 현재의 경관이 형성되었다. 띠엔꿍동굴에 색상이 있는 울긋불긋한 조명을 설치해두어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이 동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베트남 음식과 여행자 거리

•쌀국수
베트남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입맛에 맞았던 음식은 쌀국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호텔에서 쌀국수를 먹고, 평균 하루 2회정도 쌀국수를 맛본 것 같다. 베트남 쌀국수의 맛은 전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한데, 특유의 향신료(고수)와 냄새가 있어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향신료는 기호에 따라서 조절해서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맛있게 쌀국수를 맛볼 수 있다.

•GYBM 학생이 추천하는 맛집 코스-냐터런

.냐터런 성당은 1886년에 프랑스 식민정부에 의해서 지어진 성당이다. 프랑스의 노트르담을 닮은 건축물로도 유명하며, 베트남 최초의 가톨릭 건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호치민 주석이 베트남을 통치했을 당시, 천주교가 박해를 받아서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냐터런을 방문하였을 때도, 건축물이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당 문도 열려 있지 않고, 폐쇄 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광을 해보진 못했지만, 건축 양식은 기억에 남는다.

2.분짜는 베트남의 쌀국수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이다. 쌀국수와 맛이 비슷하지만, 다른 식재료들이 더 풍부하게 들어가는 음식이다. 분짜는 쌀국수를 새콤달콤한 차가운 국물에 넣어 먹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의 떡갈비와 불고기 같은 고기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넣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우리가 자주 먹는 샤브샤브처럼 말이다. 또한, 다양한 야채도 넣어 먹을 수 있다.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쌀국수보다 더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한다.

3.콩카페-하노이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지 카페이다. 냐터런 성당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는 코코넛 스무디와 커피인데, 가격은 대략 45000동으로 저렴한 편이다. 스타벅스 같은 가는 것도 좋지만, 베트남에서는 콩카페와 같은 현지화된 커피집을 방문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4.조마베이커리 카페-이 카페는 유럽식의 특유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베트남인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이 카페의 대표메뉴는 코코넛 케익이다. 우리도 몰랐지만, GYBM사람들의 추천으로 알게 된 메뉴인데, 상당히 맛이 괜찮았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약 30분의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해두어야 한다. 케익의 가격은 한조각당 60000동이고, 전체적으로 맛있지만, 조금 달기는 하다. 한국에서 비슷한 음식은 파리바게뜨의 순수우유밀크케이크와 비슷하다.

<베트남 시내_전동차_여행자의 거리, 클럽>
하노이 호엔끼엠 호수 쪽에 있는 시장은 매우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전동차를 이용하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시장구경을 할 수 있다. 전동차를 타고 시장을 구경했는데, 역시나 매우 복잡했지만 어느 정도 골목별로 카테고리가 있었다. 어떤 골목은 신발 종류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늘어져있었고 어느 골목은 옷 종류의 상점이 늘어져있었다. 당연히 먹자골목 같은 곳도 있었다. 낮에도 오토바이는 골목골목마다 꽤 많았고, 사람들은 길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기도 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노점이나 길에서 먹는 문화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문뜩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아 매연이 심한데 길에서 파는 음식들이 위생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보였다.

짧은 시장구경을 하고 나니 밤에는 어떨지 궁금했고, 그래서 밤의 하노이 시내를 구경하였다. 낮은 그냥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밤의 시장은 외국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다. 베트남 커플들도 많이 보였다. 우리는 시내에서 '핫' 하다는 여행자의 거리를 가보았다. 시내 어딘가에 자리 잡은 여행자의 거리라 불리는 사거리는 우리나라의 목욕탕의자 같이 생긴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외국인들로 가득했다. 하노이에 여행온 사람들은 다 여행자의 거리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맥주가게가 많이 보이지만 덩치 큰 외국인들은 사거리 모퉁이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들과 똑같이 해보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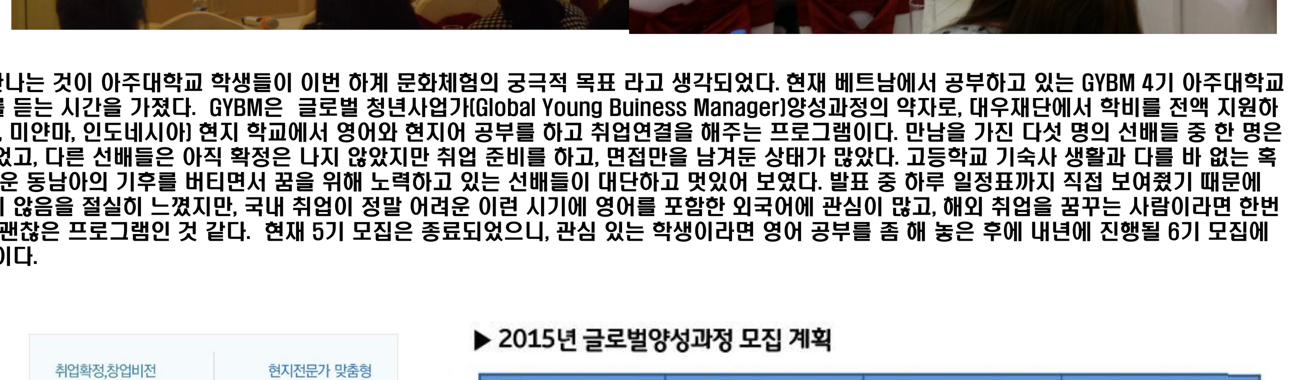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노점상이 와서 물건을 팔기도 했다. 옹기종기 모여서 먹으니까 더욱 친밀해지는 것 같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 어느새 녹아들어 흥이 났다. 흥을 품은 채 복잡한 시장을 탐험해보았다.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장을 구경하면서 어디선가 비트가 가득한 노래가 들렸고, 그곳은 한국의 클럽 같은 곳이었다. 입장료가 없다는 말에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오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클럽과는 다르게 각 자 테이블이 있었고 스테이지는 좁았다. 프리스타일이라는 가수의 Y라는 우리나라 노래도 나왔다. 클럽안의 베트남인들이 그 노래 가사를 외워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에서 한류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노래도 나왔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관심을 표했다. 외국인들도 많았고 국적이 어떻든 노래와 춤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지 그런 장소의 존재가 신기했고 경제개방의 결과라 생각을 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문을 닫지 않은 가게를 단속하는 듯 한 장면을 보았다. 사회주의의 영향인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노이문화대학교 강연과 GY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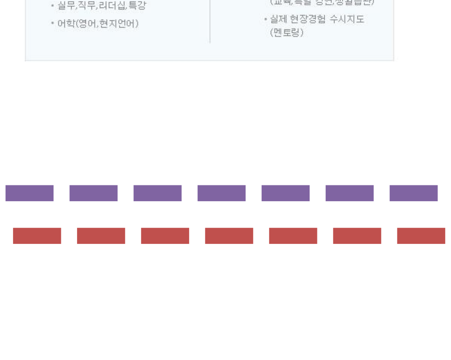
•하노이문화대학교 강연

3, 4일차 일정의 시작으로 '아주대학교-베트남 하노이 문화대학 MOU' 체결로 아주대학교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하노이문화대학교에서 강연을 들었다. 첫 날 강연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교류 진행 상태를, 두 번째 강연에서는 베트남인 교수님께 베트남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들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수많은 전쟁들과 지배를 겪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베트남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협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꽉 막힌 도로에서도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차들이 움직이는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일본-중국을 중점으로 유행했던 한류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학부가 송무원학과와 함께 가장 인기있는 학과 1,2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기도 했다.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를 공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앞으로 베트남과의 경제,문화적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GYBM

GYBM 선배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하계 문화체험의 궁극적 목표 라고 생각되었다. 현재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GYBM 4기 아주대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GYBM은 글로벌 청년사업가(Global Young Buiness Manager)양성과정의 약자로, 대우재단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동남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에서 영어와 현지어 공부를 하고 취업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만남을 가진 다섯 명의 선배들 중 한 명은 취업이 확정이 되었고, 다른 선배들은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만을 남겨둔 상태가 많았다.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과 다를 바 없는 혹독한 일정과 그 더운 동남아의 기후를 버티면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배들이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다. 발표 중 하루 일정표까지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교육강도가 만만치 않음을 절실히 느꼈지만, 국내 취업이 정말 어려운 이런 시기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해외 취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볼 만한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현재 5기 모집은 종료되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영어 공부를 좀 해 놓은 후에 내년에 진행될 6기 모집에 도전해보면 될 것이다.



▶ 2015년 글로벌양성과정 모집 계획

구 분	베트남 (5기)	미얀마 (2기)	인도네시아 (1기)
인원/연수기간	100명/ 10.5개월	20명/ 8개월	40명/ 10개월
모집/서류전형	6. 1 ~ 6. 10		
면접일정	7. 6 ~ 7. 17 (기간 중 1일 지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7. 23	8. 6	
교육 (국내+해외)	8. 2 ~ '16. 6. 11	8. 30 ~ '16. 4. 30	8. 30 ~ '16. 6. 30

※ 모집 계획의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동남아 지역중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한국과 지금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트남의 유명한 여행지도 좋지만, 진정한 베트남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퇴근시간의 오토바이 부대부터 시작하여 저녁동안 자유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